세상이 빨갛다. 내 눈에 들어오는 만물이 빨갛게만 보인다. 눈이 아프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음을 느낀다. 손에는 뜯어진 올가미와 피가 있었지만 난 여전히 살아있다. 하지만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장소, 내 과거, 내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지, 아무것도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두 가지는 확실히 기억난다. 하나는 내 이름 한성주, 그리고... 강렬한 증오와 복수심.  
  
 그래, 난 복수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난 복수를 했나? 아니면 실패하고 지금 이 상황에 놓인 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성공했음에도 이렇게 된 건가? 증오심으로 차오른 머리가 아프다.  
  
 붉어진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전등, 책상, 침대, 책장, 옷장… 여긴 누군가의 방이다. 아니, 내 방인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빠져나오고 싶었다. 목이 아팠다.  
  
 방을 나와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세상은 빨갛게만 보였다. 거울 속의 나는 목에 밧줄 재질의 자국과 손톱 같은 것으로 긁은 상처, 그리고 피가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온 몸이 붉은 색을 띄는 피부, 뾰족하게 길쭉한 귀, 흰 눈동자, 그리고 머리에 솟아나 있는 검은 뿔 두 개, 검고 뾰족한 꼬리… 난 보통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마치-  
  
 악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살아있는 느낌인데, 이런 헛것이 보이니 난 죽었나 보다. 아니, 헛것이 아니다. 확실히 만질 수 있고, 내 손에 감촉도 느껴진다. 속이 울렁거린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온 탓이다.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 나가야 한다. 난 가빠지는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누군가의 신발일 것을 대충 신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어두운 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검은 종이에 흰 점이 무수히 찍히는 형상을 보고 있으니 머리가 어지러웠다. 춥다. 하지만 괜찮다. 여기선 붉은색이 보이지 않았다. 난 아무도 없는 흑백의 뒷골목을 걸었다.  
  
 누군가의 울음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갔다. 왜 우는 것일까. 나는 울음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저 울음을 멈춰야 한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 그저 정말로 울음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냈다. 사람이 여럿 보인다. 울고 있는 한 여성과 그녀를 둘러싼 세 명의 사람들.  
  
 “사…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패거리들은 그저 낄낄 웃었다.  
  
 “하아… 얌전히 싸물고 있으라니까.”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주먹을 치켜들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흑백의 세상이 다시 붉게 물든다. 그러고는 내 눈 앞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지나간다. 모두 눈이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입꼬리는 나를 바라보며 기형적으로 올라간다.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건 내 기억인가, 아니면 내 머리가 멋대로 지어낸 허상인가.   
  
 아, 기억났다.  
  
 저 사람들이다.  
  
 내 증오심이 향하는 방향… 저것들과 같은 괴물들에게 난 복수를 하고 싶었다. 해야만 한다.  
  
 난 주먹을 치켜든 남자에게 달려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앞섰다.  
  
 “이, 이건 뭐-“  
  
.  
.  
.  
  
 잠시 후 정적이 찾아왔다. 감정을 식히고 정신을 차려보니 눈 앞에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여성, 쓰러진 패거리들, 그리고 붉은 빛으로 물든 눈이 보였다.  
  
 양 손이 아프다. 손에는 붉은 피가 흥건하다. 내가 이 괴물들을 쓰러트렸나? 애초에 나에게 그럴 힘은 있었나? 수많은 의문이 들던 차에 한 가지 떠올랐다. 이제 더 이상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여성은 이제 아무 말없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 집으로 가세요.  
  
 그제서야 그녀는 바닥을 짚고 일어나 비틀거리는 다리를 제어하며 최대한 빠르게 여길 벗어났다.  
  
 그리고 다시 흑백의 골목을 걷는다. 손에 흥건한 피가 길바닥에 떨어지며 내가 걸어온 길을 붉게 물들인다. 더 이상 세상은 붉게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붉은색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시 내가 뛰쳐나왔던 곳에 도착했다. 지금 보니 여긴 작은 빌라다. 아마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도 생활해왔을 장소인데 낯설기만 하다. 들어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붉은색은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들어가야 한다. 이 흑백의 세상은 나에겐 너무도 춥다.  
  
 그렇게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방에는 여전히 붉은 것들이 남아있다. 난 그것들을 청소하고 몸을 씻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내 과거나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그 괴물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약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들. 그들을 향해 느껴지는 복수심과 증오심. 그리고… 마침 내게 생긴 이 알 수 없는 힘.  
  
 난 여전히 악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좋다. 그렇다면 난 그 괴물들에게 악마를 보여주면 된다. 더 이상 그들이 악을 저지르지 못 하도록…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 버릴 것이다.  
  
 그렇게, 검은 방에서 난 잠에 들었다.  
  
  
  
니르바나  
프롤로그 – 빨간 세상